



2026

우체국 문화전

접수번호

기입 금지

제34회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초등고학년(4~6학년)
제 목	담요보다 먼저 도착한 마음

통영에 사는 우리 가족은 서울에 계신 외할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 없다. 일 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전부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지만, 화면 너머에서 만나는 것과 직접 손을 맞잡는 것은 분명 다르다.

며칠 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우체국 택배입니다.”

엄마가 상자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보내는 사람은 외할아버지였다. 상자 안에는 담요 세 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하나에는 내 얼굴이, 다른 두 장에는 동생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우리 삼 남매에게 하나씩 선물하려고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든 담요였다.

외할아버지는 담요를 만들어 판매하신다. 엄마가 보내 드린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진을 고르셨을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내 얼굴이 담긴 담요를 천천히 펼쳤다. 사진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끝으로 담요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나는 곧바로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외할아버지, 담요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외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제 목

“서울은 지금 눈이 펄펄 내린다. 보낼 수만 있다면 그 눈도 통영으로 보내 주고 싶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담요 뿐 아니라 서울의 겨울과 그리움까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는 외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겨울방학 되면 서울에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졌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달려온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포근히 감싸 안는 것만 같다. 서울과 통영 사이를 오간 것은 택배차 한 대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한 것은 담요만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외할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도착했다. 그래서 내게 우체국은 물건을 보내는 곳이 아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도착하는 곳이다. 그날 우리 집에 배달된 것은 담요한 장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슴을 덮어 줄 외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 따뜻함을 나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